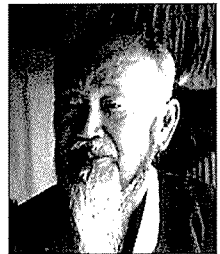


신비한 유향오리의 비밀 Ⅲ



김 일 훈 선생
재야 민속학자

11 유향오리를 천하에 소개한 인산 김일훈 선생 누구인가?

1986년, 재야 민속학자인 인산 김일훈 선생(仁山 金一勳 先生; 1909~1992)이 그의 저서 「신약(神藥)」이라는 책을 통하여 '집오리의 뇌수 속에는 암치료의 핵심적인 암약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서부터 유향오리의 효시가 되었고, '오리는 암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쓰여지는 중요한 약재의 하나이며, 오리가 지니고 있는 암 치료약의 최고 성분이 오리의 뇌 속에 들어있다.'라며 처방 및 그 이용법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일부 민간요법과 민속 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유향을 먹이는 오리 농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향오리는 암 및 각종 해독을 푸는 해독제, 정력 보충제 등으로 급속히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유향오리를 처음 알린 인산 선생은 누구인가?

새로운 신약(神藥)의 지평을 열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차세대 새로운 신약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산 김일훈 선생.

함경남도 용운면 연흥리 산중마을,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향기가 감돌던 1909년 3월 25일 밤 10시, 심야의 정적을 깨는 고고성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가득 울려 퍼진 가운데, 조상 대대로

독자 또는 양자로 근근이 대를 이어 오던 김학자댁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며 날아 내려오는 꿈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의 해몽도 또한 범상치 않았다.

구병(救病)의 열쇠를 여는 세계를 체험

선생은 일곱 살 때 비 갠 하늘에 드리워진 오색 무지개를 보고 우주 공간과 지상 만물 속에 각종 병고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무한한 약성(藥性)이 있음을 깨닫는, 범인(凡人)으로서는 남다른 구병(救病)의 세계를 체험한다.

세찬 소나기가 퍼붓는 어느 날 새벽 깊은 상념의 수렁에 빠져든다.

얼마쯤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만 한 동공이 트이더니 그 빛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거대한 달걀 같은 물체로 바뀌었다. 어둠의 바다 속에 떠있는 하나의 광명 덩어리였다. 그 중에서 유독 투명하고 어린 녹색의 빛이 가득 서려 있는 지점에 선생의 눈길이 머물렀다. 절반쯤이 검고 누런 바닷물에 싸여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다.

반도의 지상과 수중(水中)의 만물 속에 내재해 있는 갖가지 약소(藥素)들의 조직이 보였다.

누런빛을 띤 바다는 온갖 약의 보고였다. 바닷물도 그 속에 사는 어족들도 모두 약으로 보였

다. 땅위에 생물과 무생물 역시 약이 아닌 것이 없었다.

오리 뇌수가 해독제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때 집오리의 뇌 속 어느 지점에 초점이 맞추어 지더니 강한 해독제라는 것이 마음으로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리는 화독(火毒)을 푸는 묘약으로 보여졌다. 신기하기만 했다. 연속해서 눈앞에는 필름이 계속 돌아갔다. 꾸물대는 독사와 수 백 마리의 땅벌 독침은 폐병의 특효약으로 보여지고, 도마뱀의 체내에서는 미량의 독과 다량의 보양제가 비쳤다. 그 밖의 여러 독을 풀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가 들어있는가 하면 바닷물 속에는 핵비소 등 각종 불치병을 다스리는 무궁한 양의 신비한 약소들이 보였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끝없이 펼쳐지는 신비한 구멍의 세계를 보면서 선생은 이 약소들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약성을 지니며 그들의 궁극적인 근원처는 어딘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빛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둠은 또 다시 우주를 휘감았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머리가 아파왔다.

대지를 질타하던 소나기 소리가 멎는가 싶더니 어느덧 날이 흰히 밝아 왔다. 선생은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여 대문을 나섰다. 그리고 집 뒤편 언덕으로 올랐다. 무의식적으로 끌려가듯 오르던 순간 오색 무지개를 보고 그만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아! 바로 저거다!"

무지개를 보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약의 근원지는 공간의 색소임을 깨달았다. 색소 결핍으로 인간은 병들고 색소 고갈에 의해 인체가 무너짐을 알았다. 다시 말해 색소의 이합집산(離合集)

散)은 못별의 주재 하에 이루어지고, 별들의 주재로 만물은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생명은 별의 정기(精氣)를 타고 난다. 그 못별들의 정기를 타고 각각의 생명들은 그 약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멍의 세계가 열려졌던 것이다.

그 중 최고 양질의 약성을 가장 풍부히 지니고 있는 이 지구상 약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 땅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던 것이다. 다른 아닌 한반도 상공에는 영약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산삼의 색소분자를 비롯하여 갖가지 우수한 약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색 무지개를 보고 무변광대한 구멍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선생은 그날부터 이 세상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거대한 고독감에 휩싸여 살아야 했다. 이러한 체험을 겪은 선생은 실질적인 실험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살아있는 구멍법을 펼쳐 나갔다.

실험가적인 신약자(神藥者)였다.

어느날 독사에 물려 죽음 직전에 있는 마을 사람에게 동해산 마른 명태를 달여 먹여서 살려냈던 일, 부족증(不足症)에 걸린 같은 또래의 마을 친구를 땅벌 등지 근처로 데려가 벌집을 건드리고 혼자만 피해 뿔 기력이 없는 그 아이만 벌을 씹게 하여 7일 동안의 몸살 끝에 완치되게 한 일, 또 폐암에 걸려 앓고 있는 친구의 집을 어두운 밤에 찾아가 그의 눈을 가리고 미리 잡아 간 까치독사의 입에 엄지손가락을 물리게 하니, 뱀은 그 자리에서 부어 죽고 환자는 완치되는 등 수많은 실험가적인 기적을 남기기도 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자연에서 찾는 구멍의 묘방을 신약이

라는 저서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선생은 "내가 발명한 암약과 처방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나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나는 다시 오지 않아도 될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난 뒤 일거요..."라는 말을 남기고 1992년 이 세상을 떠난 신약자(神藥者)이다.

12 인산 김일훈 선생의 유황오리 극찬

왜 오리에게 유황을 먹일까? 오리는 해독능력이 탁월해 시궁창에서도 병 없이 잘 산다. 유황을 집어먹고도 살 수 있는 동물은 오리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오리는 해독능력이 탁월하여 시궁창에서도 병 없이 잘 살고, 청산가리나 양젓물을 먹어도 여간해서 죽지 않는다.

유황 먹고 자란 오리는 해독능력이 더 좋아지고, 유황은 오리의 체내에서 독성이 제거되고 약성은 축적된다. 인산 선생은 이점에 착안하여 오리에게 유황을 먹여 기른 뒤 다시 그 오리를 사람이 먹어 병을 이겨내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유황 먹고 자란 오리는 해독능력이 더 좋아지고, 유황은 오리의 체내에서 독성이 제거되고 약성은 축적된다.

오리는 유황을 먹고, 사람은 그 오리를 먹는다.

오랜 옛날 무병장수를 꿈꾼 이들이 유황을 법제하여 금단이라는 약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으나, 득을 보기는 커녕 하나같이 유황독의 화를 입었다. 그만큼 유황의 법제가 어려운데 인산선생에 이르러 유황의 완전무결한 법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유황오리는 몸 안에 쌓인 각종 공해독을 풀어주고 사람의 원기를 높여 인체의 질병

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해독보원(解毒補元)의 으뜸 유황오리탕

"...그래서 내가 오리에다가 마늘을 넣는 약화제(처방전)를 잘 하는데 오리는 모든 해독제요, 해독제이면서 보양제다. 우선 해독을 시키면서 양을 돌워야 한다.

양은 거약생신작용을 한다. 또 마늘은 보양제이면서 거약생신하니, 마늘은 창약이고 오리는 소염제다. 마늘 중 굵은 것은 살이 찌게 하는 보음제고 작은 것은 원기를 돕는 보양제다."(인산 김일훈 선생의 <神藥本草> 중에서)

'오리'는 지상의 생물 중 가장 강한 해독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산 김일훈 선생에 따르면 오리는 수성(水星) 분야에 속한 여성정(女星精)을 응하여 화생(化生)함으로써 체내에 극강한 해독제를 함유하고 있어 농약독·화공약독 등 모든 독물질을 해독한다.

유황은 오리의 해독력을 더욱 높여준다.

유황오리는 해독력이 극강할 뿐만 아니라 원기를 보충하는 작용을 하여 병세가 위중하거나 체력이 극도로 떨어진 경우에 두루 쓰인다. 인산 의학의 모든 처방에 공통약이라고 하여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암약재로 알려진 오핵단(五核丹)과 삼보주사(三寶注射)의 주원료이다.

유황(硫黃)

1. 유황은 불덩어리이다. 그러나 천연의 불로 이루어진 광석물로 돌은 돌인데 불 곁에 가면 불

이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스와는 다르다. 가스는 인간이 법제(法製)해 먹고 장생술을 얻기는 힘들어도 유향은 그것이 된다. (신약본초 152쪽)

2. 유향은 산삼이나 녹용보다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유향은 순 보양제(補陽劑) 이면서 보기(補氣)엔 약하다. 기운을 돌우는 기(氣)는 약하고 보양은 빨라도 기는 약하다.

그래서 그 기를 보조하기 위해 우리 땅에서 많이 나는 인삼을 사용하는데 그것으로 보음(補陰)·보기(補氣)시키고 유향으로 순보양(純補陽)을 시킨다. (신약본초 154쪽)

3. 유향은 순 불덩어리이면서 가장 무서운 양기(陽氣)를 지녔다. 양기라는 것은 곧 정력(精力)으로 이것을 오리에 이용하게 되면 쉽게 먹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효(效) 나는데 알을 낳게 하여 그 알을 먹으면 더욱 좋다.

허한(虛汗)이 있어 양기(陽氣)가 물러가서 허한이 심한 사람, 요통(腰痛) 중에 고생하는 사람 등에 특히 효험이 있다. (신약본초 157쪽)

4. 그래서 유향이라는 건 상당히 보양제(補陽劑)이다. 유향은 보양제인데 금액단(金液丹)을 만들고 금단(金丹)을 만들래도 유향에 대한 법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 힘든데, 토종오리에다 그렇게 먹이면 그런 금단은 정말 귀한 것으로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두고 먹으면 상당히 좋다. (신약본초 202~203쪽)

5. 땅에다가 유향을 좀 많이 치면 땅 속에 있는 모든 화공약 기운은 절로 해독되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진기가 모르게 소생하게 되면 황토를

새로 갖다 붓는 것과 비슷하여 황토의 힘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실상 필요한 것이다.

6. 쌀재배에도 유향을 사용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유기농 재배가 아니고서야 농약이 남용되고 그 농약은 쌀겨에 잔류한다. 결과적으로 농약의 일부도 먹게되는 것이다.

쌀재배시 비료시비할 때 유향을 조금 섞어주면 생장도 잘되고 농약의 독성도 약화시키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약본초 908쪽)

7. 독극약의 원천은 이러하다. 형혹성에서 통하는 우주진은 유향독소이다. 태양화구에서 용액으로 화하여 지구에 오면 황토의 우주진은 토액에 합성하여 유향광석물로 화한다. 본성이 화성의 화기다. 그리하여 화기는 근본이고 화성은 본성이다. 그러한 유향을 완전 제독하면 형혹성의 약성과 지중화구의 우주진이 합성한 약성, 지상황토의 약성을 합성하면 선약이 된다. ...유향을 완전 법제하면 최고의 보양제이다. 무병건강하고 장수한다. (신약본초 993~994쪽)

